

아이돌보미 심리지원 프로그램 ‘컬러테라피’ 실시



의정부시 가족센터(센터장 윤양식)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의정부시 아이돌보미 20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컬러테라피’를 운영했다.

아이돌보미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의 스트

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컬러테라피’ 프로그램은 컬러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아보는 색채심리진단, 현재 감정과 스트레스를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색채감정사전 제작, DIY 하바리움 만들기 등 총 3

회기로 구성되어 아이돌보미가 내면을 탐색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돌보미들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심리적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아이돌보미를 위한 심리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한다”라며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의정부시 가족센터에서는 만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문의 및 이용상담은 의정부시 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31-878-7216)으로 하면 된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3분 미중경제] 사드의 목표가 북한이라고?



한 광수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장

전) 금강대학교 총장

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학장

언제나 세계제국의 전략을 제멋대로 읽으면 재앙은 불가피하다. 13년 전 '닥치고 반공'도 그렇게 중첩했다 (10.26).

요즘 윤정부의 사드정책도 일차원적 굴레에 갇힌 한국 보수의 민낯 그대로다. 사드를 들여다보자.

한국에 사드배치 구상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안한 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3년 6월, 미국의 힐러리였다 (북핵과 ICBM 완성 산언 4년전).

그녀는 당시 매우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임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중국에 우리 입장을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을 손에 넣는다면 참지 않을 것이다.

북한 미사일이 한일과 미 하와이와 서부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할 것이다."

이 때가 언제냐? 중국경제규모가 일본을 누르고 미국 추격이 시작되자, 오바마가 갑자기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중국 포위(Pivot to Asia)를 선언한 2년후다. 말하자면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중경쟁의 달갑지 않은 부산물인 것!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글로벌 전략 균형도 훼손된다.'

미국은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한

국 여론에 맞서 부통령 이하 정부 관리, 군 장성, 의회 간부, 명문대학자들을 총동원해서 서울로 보냈다.

당시 한국은 박근혜 탄핵과 촛불시위, 대선을 지나며 여리고, 예민한 고비를 힘겹게 견디던 시기였다. 사드에 대해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닫았다.

지금 정부는 멸공 외치듯 시드를 외친다. 주한 미군사령관도, 주한미국 대사도 장구를 친다.

잘 보시라! 미국이 사드 배치로 일거양득하는 모습을. 반중국-반북한을 엮은 멸공, 그리고 남한 내부의 어리둥절 갈팡질팡 여론 호도 역시 사드 배치는 가성비가 대단한 전략이여!